

만남

2016 2월
통권 133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	_____	3
신부님 칼럼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 _____	4
소공동체 모임 자료	인간의 두 가지 길(시편 1.1-6) _____	5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126~128 -----	8
기도 소개	아침 기도 II _____	14
찬 양	나 -----	16
우리들의 이야기	설날 이야기 -----	18
공동체 소식	_____	19
지방 공동체 소식	_____	22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_____	23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_____	24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_____	25
미사안내	_____	26

《교황님의 2월 기도지향》

❖ 일반 지향 - 피조물 보호

우리가 선물로 거저 받은 피조물을 미래 세대를 위하여 잘 가꾸고 돌보며 보호하도록 기도합니다.

❖ 선교 지향 - 아시아

아시아 민족들과 그리스도 신앙이 서로 만나 더 많은 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교황님의 권고 기도문(2015.12.8-2016.11.20)

2016년 11월 달까지 미사 전에 바칩니다.

†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워지라고 가르치시며 주님을 본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저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 주소서. 저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눈길로 자캐오와 마태오를 돈의 종살이에서 풀어 주시고,
피조물에서만 기쁨을 찾던 간음한 여인과 막달레나를 구원하셨으며,
베드로가 배반을 한 뒤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참회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나이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게 해 주소서.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보이는 얼굴이시며,
용서와 자비로 모든 이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얼굴이시니,

이 세상에서 교회가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보이는 얼굴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이들도 나약함으로 갈아입고,
무지와 잘못에 빠진 이들과 함께 아파하기를 바라셨으니,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만나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보살핌과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소서.

주님의 영을 보내시고 그 기름을 부어 주시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비의 희년이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되어,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열정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억압받는 이들과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해 주소서.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갇아 주실 것이다.

이번 달은 설날과 사순절을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이 있습니다.

설날과 재의 수요일이 전혀 성격이 다른 날 같지만 사실은 같은 날입니다.
설날을 한자말로 신일(愼日)이라 합니다.

신일(愼日)이란 경거망동을 삼가고 참(眞) 마음(心)을 찾는 날(日)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를 맑고 밝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참마음(愼=眞心))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 그릇에 복을 담아주십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머리에 재(灰)를 받습니다.

머리에 재를 받는 예식을 통해서 인간은 흠에서 와서 흠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 근본을 아는 사람은 사탄 욕망(邪慾)과 사사로운 마음(邪心)을 버리고,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참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을 회개(悔改)라고 합니다.

참 마음으로 사순절 40일 거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부활의 기쁨을 누립니다.

기쁨과 행복을 밖에서 찾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사욕(邪慾)과 사심(邪心)을 버리고 참 마음으로 하느님과 대면하는 사람은 가슴 깊은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당신의 사순절이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인간의 두 가지 길(시편 1.1-6)

◆ 저번 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한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4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화답송)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자리에 오시어 저희의 무딘 마음을 깨우쳐 주소서.
- 주님, 저희 모두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어 함께하소서.

◆ 하느님 말씀 (복음 나눔)

(진행자) 한 분이 시편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 1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 2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 3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
- 4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 5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6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1.(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2.(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3.(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두 가지의 선택에서 갈팡질팡하고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올바른 길이었구나’ 하고 하느님께 감사했던 적이 있다면 각자 나누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소공동체장)

이름난 화가가 위대한 초상화를 그려 후세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찾아 이 마을 저 마을을 헤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빛나는 눈망울을 가진 선한 얼굴의 양치기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화가는 목동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결과는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초상화를 자기 집에 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화가는 인간의 내면에는 선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악마의 모습을 그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는 고생 끝에 저주와 분노로 가득 찬 한 죄수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림을 완성한 화가가 두 그림을 비교해 보기 위하여 나란히 놓았을 때, 그림을 훑쳐보던 죄수가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화가가 의아해 하

자, 죄수는 천사와 악마의 모델이 모두 자신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천사의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마의 존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백지 같은 하얀 마음에 선과 악을 그렸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백지에 무엇을 그려 넣을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올해의 새 백지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그려 넣으면 좋을까요?

◆ 생명의 말씀 정하기(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자유기도 (진행자) - 영성체 후 : 마음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 사제와의 통교 - 미사 강복 후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4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2,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교리126

신앙의 목표(13)

13. 열정(Passio)

난쟁이 자캐오(루카 19,1-10).

- 1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 2 마침 거기에 자캐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 3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 4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들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 5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 6 자캐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 7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자캐오는 키가 작은 세관장이었고 부자였으며, 사람들이 기피하는 인물이고 사람들로 부터 죄인으로 멸시받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캐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를 환호하며 쫓는 무리를 앞질러 달려가고 사람들의 야유를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들로부터 돈만 아는 세리라고 배척을 받지만, 그에게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가 키가 작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줍니다.

키가 작아 도저히 주님을 볼 수 없는 그는 사람들이 그런 자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고 높은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의 그런 작은 마음에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감추어 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은 열정, 지금의 이 상태로 살고 싶지 않은 열정, 새 사람으로 살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무에 오른 작은 자캐오에게서 그 마음, 열정을 보십니다.

모든 이의 마음 안에 감추어 있는 이 열정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너와 같이 하느님의 창조물이다.”

“이 사람도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인간 하나하나 안에 감추어 있는 씨앗을 투시하셨습니다.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에게서 배반의 아픔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씨앗을, 간음하다 들킨 여인에게서 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자캐오나 세리에게서 물욕이 아니라 영원을 추구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값싼 동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두를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자캐오를, 그 여인을, 베드로를,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을 사랑하고 기억합시다. 새롭게 시작되는 연중과 사순의 때, 우리의 선(善)하고자 하는 열정을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교리127

신앙의 목표(14)

14. 성서(聖書) 속의 진리

성서에 기록된 모든 것, 곧 마지막 철자 하나까지 성령의 영감(靈感)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서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서를 열면 그 첫 장부터 오류를 발견합니다.

일주일간에 걸친 창세기 기록을 따라 추적해 보면 인류의 역사는 고작 6천 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과학 연구에 따라 인류의 역사는 2백만 년이고, 우주의 역사는 150억 년이라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서에 의하면 인류의 원조는 아담과 하와이며 그들은 카인과 아벨을 자녀로 두었지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땅 위에서 도주하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누가 카인을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찍어주셨다.”

(창세 4, 15)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후 카인은 에덴을 떠나 놋이라는 땅으로 가서 아내를 얻어 에녹을 낳았습니다.(창세 4,16 - 17)

여기서 카인을 위협하는 다른 이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며, 그 아내는 도 대체 어디서 온 누구인가?

마태오와 루가가 전하는 예수의 족보가 다르며, 예수의 직무와 수난과 부활에 관계되는 여러 사건에 대해서도 각 복음서는 일관성 있게 하나로 종합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리고의 길가에는 소경이 두 명 있었는가(마태 20,30), 아니면 한 사람만 있었는가?(마르 10,46)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래아에 나타나셨는가(마르 16,7 ; 마태28,16 - 20), 아니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만 나타나셨는가?(루카 24장)

복음서는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자였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바오로는 베드로라고 하고 있습니다(1고린 15,5).

이렇듯이 성서 안에는 많은 모순과 함께 역사적·지리적·과학적 오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서에 표현된 진리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위의 오류를 애써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서를 과학책이나 역사책으로 간주하면서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사람들에게 현대 과학의 수준에서 글을 쓰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는 또 우리에게 수천 년 후의 과학적 지식을 갖추어 말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에 사는 아인슈타인이나 호킹과 같은 위대한 학자들의 박식한 지식조차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리는 과학적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 언어로 우주의 신비에 대해 표현하는 것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하늘이 우리 위에 펼쳐져 있다느니, 아침에 해가 동해에서 떠오르고 서산으로 진다느니, 밤에 별이 반짝인다느니 하는 것은 문학적 표현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해는 바다에서 뜰 수 없지요.

하지만 이런 문학적 모든 표현들이 부정되고 나면 인생에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성서의 저자들이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과학적으로 표현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그들의 문학적 표현에 감추어 있는 진리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서 저자들은 창조주의 선하심과 능력 그리고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여러 가지 종교적 진리를 가르치고자 한 것이지, 고대의 우주 개벽설과 우주론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 아니지요.

진리는 그때그때의 인간의 수준에 맞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서에 기록된 것을 알기 위해 성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문학 유형 · 전승 · 언어 · 사고방식 등을 주의 깊게 탐구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계시현장’ 12항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성서에서 인간을 통하여 인간의 방식으로 말씀하셨기에, 성서 해석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성서 저자들이 정말로 뜻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며 하느님께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 성서 저자들의 진술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문학적 유형들’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는 본문에서 역사적 · 예언적 · 시적 또는 다른 화법 등 여러 양식으로 각각 다르게 제시되고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서 해석자는 성서 저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그 시대와 문화의 여러 조건에 따라 당시 일반적인 문학 유형들을 이용하여 표현하려 하였고 또 표현한 그 뜻을 연구해야 한다. 성서 저자가 글로써 주장하려 한 것을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널리 쓰이던 그 지방 고유의 사고방식 · 언어방식 · 설명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상호 교류하며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방식들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성서 속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성서 속의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성서 속의 하느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여러분의 표현 방식으로 일상에서 표현하십시오.

그 분의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숨 쉴 것입니다.

교리128

신앙의 목표(15)**15. 침묵**

예수님께서서는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신 뒤 당신이 하신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마르 1,34).

왜 그리하셨을까. 마르코는 그 이유를 이렇게 씁니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르 1,34).

이 일화에 앞서 예수께서는 악령 들린 사람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1,25)하며 악령을 쫓아내시는데, 이때도 그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은 회당에서 큰소리로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려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외쳤지요.

악령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며 큰소리로 외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리는 충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천상의 계시를 받은 거룩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큰소리로 예수를 알고 있다며 외치고 다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교회의 장(長)을 맡았었다고 떠벌리고 다닙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고 삶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일이 또 있을까?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장차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떠들어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마태 24,4-5)

“입을 다물어라.”

‘예수 홍수’ 속에 사는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입 조심할 것을 명하십니다.

큰소리의 말에 속지 않도록 하라. 마귀도 예수가 누구라고 떠들 수 있다.

마귀에 시달리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고, 열병에 걸려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시고, 고통 받는 이들을 구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사람들이 당신의 능력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그 행위 이면에 감추어 있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큰소리로 제소리만을 내는 마귀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조용히 기도하는 자만이 그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마르 1,35)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딴 곳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굳이 찾아내어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마르 1,37)하고 전하는 말에서 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기적을 쫓아 예수를 찾고 있는 그들은 아직 기도하시는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들이 예수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들이 큰소리치는 마귀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

비안네 신부

거룩한 시간(아침)

하루의 시간 시간마다 제 특성이 있다. 그 중에도 우리에게 가장 뚜렷이 느껴지는 것이 셋 있다. 아침과 저녁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는 낮이 그것이다.

아침기도 II

새날을 맞아 깨어나는 자연에 귀를 기울리라...

자연 속에 침묵과 노래가 어우러짐을 주시하라 -
삼라만상의 노래가 얼마나 다양하며
그 침묵이 얼마나 깊은가!
우주를 감싸고 있는 저 영원한 침묵을
자연의 어느 소리도 방해하지 않는다.
저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면
언젠가는 저 침묵을 듣게 될 것이다.

삼라만상(森羅萬象)이 깨어나면서,
밤의 고요를 활동으로 대치하면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이제 너의 가슴에 귀를 기울여라.
거기에도 음악이 있다. - 너도 자연의 일부니까.
그 노래를 들어 본 적이 없다면 너는 정말로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귀를 기울여라!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슬픈... 행복한... 희망적인... 사랑 어린...?
너의 가슴 속에도 침묵이 있다.
네가 생각을, 잡념을, 상상을, 느낌을
그 하나하나를 의식하게 된다면,
그 침묵을 느끼지 못할 리가 없다...

이제 네 가슴의 노래가
주위의 자연의 노래와 어우러짐을 보라...

귀를 기울여라.
더욱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수록
더욱 조용해질 것이다.
더욱 조용해질수록
더욱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4

송명희 글 / 최덕신 곡

나 가 진 제 물 없 으 나- 나 남 이 가 진 지 식 없 으 나-

나 남에게있는건강있지 않으나 - 나 남이 없는것있으 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 았고 -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 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 - 나 남이 모르는 - 것 깨 달 았 네 -

- 공 평 하 신 - 하 느 님 이 - 나 남 이 가 진 것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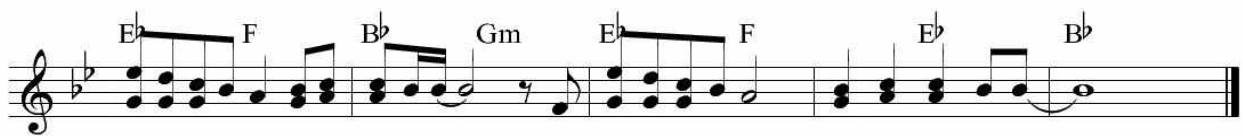
없지만 - 공 평 하 신 - 하 느 님 이 - - 나 남 이 없 는 것 갖 게



하 셴 네 - 하 셴 네 - 공 평 하 신 - 하 느 님 이 -



나 남 이 가 진 것 나 없 지 만 - 공 평 하 신 - 하 느 님 이 - - 나



남 이 없 는 것 갖 게 하 셴 네 - 나 남 이 없 는 것 갖 게 하 셴 네 -

정명옥 살로메

오랜 세월 타국생활, 생존을 위한 일과 불완전한 삶에서 명절의 즐거움을 잊고 살아왔다.

동무들이 뛰며 낄낄거리고 야단들 하던 유년시절의 기쁜 설날을 은근슬쩍 그려 본다 .

머리에 고운 땃기 길게 드리고
연분홍 치마에 색동저고리
꼬막 같은 발보신 코고무신 신고
오르랑 내리랑 널판 위를 뛰 놀았네

팔랑 팔랑 치맛자락 휘적휘적 날리며
하얀 속옷 바지를 훌렁훌렁 들추며
아기천사 뛰놀듯 함박꽃 활짝 피듯

그리워라 어릴 적 어깨동무 친구들
하늘만 보면 생각나는 우리우리 설날.

❖ 2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안 스 카 (St. Aansgar)	이 경 규	10일	스콜라스티카 (St. Scholastica)	조 영 희
5일	아 가 다 (St. Agatha)	문 경 영 정 순 화	16일	율리안나	안 지 영
			18일	마리아나 (St. Mariana)	한 말 조
			24일	마티아스 (St. Mathias)	이 도 영
7일	리 차 드 (St. Richard)	박 춘 실 Groensel	26일	이사벨 (St. Isabel)	이 다 윤

❖ 2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일	요 안 나 (St. Joanna)	이계선(H)	5일	아 가 다 (St. Agatha)	허윤선(O) 정금선(B)
4일	요 안 나	이순자(H)	9일	알렉산드	문지훈(H)
			16일	율리안나	송윤아(H)

❖ 2월 미사 전례 봉사자 ❖

2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카페 봉사
7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정수(토마스) 김진호(프란치스코) 곽케빈(요셉)	청년회
10일	최영숙(데레사) 강순행(말가리다)	김치수(도밍고) 김영희(클라우디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곽케빈(요셉)	요셉 마리아회
14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주일학교 복사단	1구역
21일	김민수(아우구스티노) 박귀동(토마)	윤예진(모니카) 김잔디(아네스)	주일학교 복사단	2구역
28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김애란(세실리아) 김매자(베로니카)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정수(토마스)	3구역

❖ 2월 성가번호

2월	입 당	봉 헌	마 침
7일	55	512	9
10일 (재의 수요일)			
14일	115	211	119
21일	125	216	490
28일	117	213	122

❖ 세상을 떠난 교우를 생각합니다. ❖

2월8일(설) ♣ 조상, 부모, 친지와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기억하는 연령 모두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12/25	12/27	1/1	1/3	1/10	1/17	2차헌금
계(€)	371.93	252.61	275.12	203.60	212.21	197.91	261.95

❖ 자진헌납금 ❖

2015년 12.21—2016년 1.17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박종래, 박재형, 김형웅, 노정자, 현영애, 우동천, 진윤희, 김기연, 손수희, 이현묵,
최장용, 이종하, 이기열, 권지연, 이정수, 김민수

구좌입금 :

서유미, 허두옥, 김치수, 곽케빈, 허길조, 최현봉, 이상봉, 이성원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월부터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가 교황님의 권고에 따라 바쳐집니다. **일시 : 2015.12.8 - 2016.11.20**
2. 2년 동안 수고해주신 사목협의회와 각 구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 각 소공동체 기도 모임의 호칭은 ‘복음 나누기 기도회’ 라고 바꿉니다. 각 구역의 봉사와 아름다운 친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복음 7단계 복음 나누기를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기존 시간(금요일) 17:00에 새로운 기도 회합이 구역에 관계없이 구성됩니다. (2구역, 청년, 요셉 마리아회 제외)
4. 예비자 김보경 자매님, 김경미 자매님, 김 건 형제님, 노하빈 자매님, 이희자 자매님께서 하느님의 아름다운 도구 되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세례는 이번 부활절입니다.
5.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도움을 주시길 청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함부르크 교구와 함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6. 2월 8일(월) 설 미사는 2월 7일(주일)에 봉헌되어집니다. 연미사를 신청하실 분은 미리 전례부장님에게 전달해 주시길 청합니다.
7.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에 기도 초 축복이 있으니 원하시는 분은 전례부장님에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월 2일(화) 평일 저녁미사 때 있습니다.
8. 2월 10일(재의 수요일) 미사는 강당사용이 허락되지 않아 만남성당에서 19:00에 봉헌 되어집니다.
9. 2월 27일부터 계획되어 있던 사순피정은 장소 문제로 취소 되었습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브레멘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31
2. 저의 공동체에서 전례를 보시던 고찬연 아우구스티노 형제님께서 Frankfurt로 이사를 가십니다. 물심 양면으로 수고해 주신 형제님께 감사드리며, 형제님과 형제님 가정에 항상 주님의 은총이 풍만 하시기를 빕니다.
3. 시리아 난민돕기 성금으로 브레멘 공동체에서는 200유로를 본당 계좌에 입금 하였습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하노버 공동체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소공동체 기도모임을 안토니오 성당에서 갖습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1월 소공동체 기도모임을 23일(토요일) 15:30에 안수경 프란치스카, 이재홍 요셉 가정에서 갖습니다.
2. 새해부터 공동체 회장직 봉사를 노금순 데레사 자매님이 맡게 됩니다. 많은 기도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집전화 : 0541- 5062637)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최 영 숙 데 레 사	040/ 3742 0006 0157 5012 6332
구 역 장 모 임		공지 시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구 역 분과장	회 장 단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 비 자 교 리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공 석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공 석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 매 자 베로니카	8509768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이 영 희 체칠리아	5277854	
		3구역	구역장			
			총 무	김 형 웅 야고보	0157 84305419	
		4구역	구역장	문 경 영 아가다	20971988	
			총 무	공 석		
청년부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부회장	서 유 미 레지나	0176 2491 0077	
요셉, 마리아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반 장	심 은 희 안나	0157 8045 2206	

❖ 2016년 2월 ❖

2 월 중 행 사 예 정 표

일	요일	축 일	단체행사	비 고
1	월			
2	화	주님 봉헌 축일 봉헌 생활의 날		봉헌초 축성
3	수			
4	목	입춘	꾸리아	
5	금	성녀 아가타 동정 순교자 기념일	복음 나누기 기도회1	
6	토	성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브레멘 공동체
7	일	연중 제5주일	설미사 15:00	구정행사
8	월	설 미사		예수 성심 성당
9	화			
10	수	재의 수요일	요셉, 마리아 소공동체	만남성당
11	목	세계 병자의 날		
12	금		2구역 소공동체	
13	토			오스나브뤽 공동체
14	일	사순 제1주일	청년 소공동체	
15	월	교구설정 50주년 기념일		
16	화			
17	수			
18	목			
19	금	우수		
20	토			하노버 공동체 (미사장소변경)
21	일	사순 제2주일		
22	월	성 베드로 사도와 축일		
23	화			
24	수			
25	목		연령회	
26	금			
27	토		사순피정 취소	강당 관계
28	일	사순 제3주일		
29	월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목회장 최 영 숙 데 레 사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발 행 인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본당신부님	viannae@hanmail.net H.P : 0176 8464 7981
편 집 인	남궁춘배 바로톨로메오	cbnamgoong@hanmail.net H.P : 0151 2341 2732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각 소공동체 17시 30분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테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 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

H.P : 0157 5447792



2015 배구대회



2015 세레, 첫 영성체